

# 玄宗 詩歌에 나타난 황제의 人品

- 巡遊詩 중심으로 -

金勝心\*

## <目 次>

1. 序言
2. 玄宗의 巡遊詩
3. 詩 속에 나타난 玄宗의 人品
4. 結言

## 1. 序言

《唐詩三百首》중에 유일하게 唐代 황제의 시 한편이 들어 있는데 그 주인공은 唐 玄宗이다.<sup>1)</sup>

唐 玄宗은 음악과 문학을 사랑했는데 특히 시가를 좋아하여 지금까지 전해지는 시가는 63首가 있다.<sup>2)</sup> 玄宗 李 隆基(AD 685~762)는 睿宗 李 旦의 셋째아들이며 德妃 武 氏(竇氏) 소생으로 당 왕조 제 7대 황제(712~756년 까지 재위)이다. 황제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3살 때 楚王에 봉해졌고, 7세 때 官屬을 두었으며 8세에 임치왕이 되었다. 이후 韋尉少卿, 潞州別駕, 銀青光祿大夫등을 지냈다. 26세 때 고모인 태평공주와 연합해서 정변을 일으켜 위황후의 세력을 제거하고 睿宗을 황제에 즉위시키고 자신은 평왕에 봉해지고 황태자가 되었다.<sup>3)</sup>

\* 안동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唐玄宗의 〈經魯祭孔子而嘆之〉가 《唐詩三百首》에 들어 있다.

2) 《全唐詩》에 玄宗의 시 63首, 殘句二首가 전해진다.

3) 《자치통감》 권 210 참조.

현종은 즉위 초, 무척천 시기부터 이어진 중앙 정치의 불안정한 상황을 수습하고 인재를 등용하여 사회 경제발전을 이끌어 '開元之治'를 이루었다. 현종의 치세 동안 당 왕조는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여 개원 25년을 전후하여 절정기에 이른다. 이 시기 왕조의 정치제도와 사회질서는 가장 완비되었고 경제 안정과 문화 발전의 전성기를 맞이하여 당 건국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누려 태종의 '貞觀之治'와 더불어 당나라 태평성대를 대표하는 '開元之治'가 이루어지게 된다.

현종의 재위기간 44년은 전기인 開元(712~741) 시기와 후기 天寶(742~756) 시기로 나뉘어진다. 開元·天寶 시대는 당대 뿐 아니라 중국 역사에서 모든 전통 사회 경제 발전의 전성시기 가운데 하나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안정되니 문화가 자연스럽게 번영하게 되었다. 문화 번영을 촉진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자가 문화를 중시하고 창도하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시를 읽으면서 작자의 사상을 엿볼 수 있고, 그 시대의 문화와 사회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제 현종의 시를 통해 통치자로서 어떠한 人品을 가졌을 까 이 의문점을 풀어 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당 현종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2000년 이전까지는 그다지 연구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 약간의 논문과 논저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당 현종의 정치, 경제, 문화정책 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sup>4)</sup> 2000년 이후부터 당 현종의 문학에 대한 연구가 점점 많아졌다. 통계에 의하면 당 현종 문학에 대한 논문이 모두 11편인데 그 중 2편은 석사 논문이고, 나머지 9편은 기간지에 실린 짤막한 논문들이다.<sup>5)</sup> 그 논문들을 잠깐 살펴보면 邵世民의 〈開盛唐廣大清明氣象-唐玄宗詩歌研究〉<sup>6)</sup>는 당 현종 시가에 대해 비교적 전체적인 분석을 하여 道教詩, 送別詩, 遊宴巡幸詩 등 3종류로 분석을 하였다. 그 중 중점적으로 분석한 것은 시가의 사상내용과 7수의 시를 선정하여 시가 만들어진 시간을 고증하였다. 李乃龍〈道士

4) 張振華의 두 편의 논문 〈李隆基與盛唐詩歌〉, 〈淺析唐玄宗與盛唐詩歌崛起之關係〉에서도 성당 시가가 번영한 정치적요인, 당현종이 실시한 문화정책, 당현종의 문학 사랑이 성당시가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나에 초점을 두었다.

5) 沈文凡·王春明의 〈盛唐詩幸: 百年來唐玄宗詩歌研究綜論〉《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第53卷第3期, 2013年 5月 참고.

6) 邵世民《開盛唐廣大清明氣象-唐玄宗詩歌研究》, 首都師範大學 碩士論文, 2008年.

與唐詩)7)에서는 唐玄宗과 司馬承禎, 張果의 교류와 왕래한 시작에 대해 언급하였고, 許總〈盛唐詩繁榮的人學視野〉8)에서는 때 마침 좋은 기회를 만났던 각계 각층의 사람들의 활동과 특별히 성당시가가 번영하게 된 중요한 원인에 대해 논했는데 그 중 당 현종 시가 창작과 그 시풍의 개성화, 궁정문학이 창작하게 된 영향 등을 논했다. 石雲濤《跋唐玄宗〈賜新羅王〉詩》9)에서는 唐나라와 新羅가 우호관계에 있었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 이 한 수의 시가 가지고 있는 미학적인 의의를 지적하였다. 丁放, 袁行霈의〈唐玄宗與盛唐詩壇-以其崇尚道家與道教爲中心〉10)에서는 당 현종을 둘러싸고 있는 몇몇의 도교 인물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다. 그들은 당 현종 정사에 영향을 주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시인 일파가 조성되어 시인과 현종사이 교량역할을 하였다고 논했다. 또 위 논문에서는 성당 도교시가의 題材, 風格, 體裁 등 방면의 새로운 특징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근 20여 년간 당 현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 연구 내용이 풍부해 졌고 특별히 당 현종 문학 작품에 대해 학자들의 관심이 많아진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중국학자들에 의해 연구 되어온 것이고, 한국에서 현종의 문학작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11)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 학자들의 관심이 좀 있었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

본 논문은 현종의 시 63首 중 巡遊詩를 분석하여 시 속에 나타난 현종의 인품을 살펴 본 것이다.

## 2. 玄宗의 巡遊詩

당 현종의 巡遊詩는 모두 21首로 그의 63首의 시가 중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

7) 李乃龍〈道士與唐詩〉江蘇社會科學, 2000(4).

8) 許總〈盛唐詩繁榮的人學視野〉中州學刊, 2002(2).

9) 石雲濤《跋唐玄宗〈賜新羅王〉詩》北京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2003(3).

10) 丁放, 袁行霈의〈唐玄宗與盛唐詩壇-以其崇尚道家與道教爲中心〉, 中國社會科學 2005(4).

11) 崔宇錫은〈唐皇帝의 詩歌創作과 그 詩歌史的 의의〉에서 당 현종과 성당시의 변성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中國學論叢》2013. 제39집. 85~88쪽, 고려대 중국학연구소.

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를 통해 巡遊의 목적을 살펴본다.

豈徒勞輶跡      나의 순찰로 공연히 수레와 말을 피곤하게 하는 건 아닌지  
 所期訓戎車      이곳에서 사병들을 훈련시켰으면 하네  
 習俗向黎人      서민들에게 풍속을 이해시키고  
 親巡慰裏閭      친히 골목길 누비며 백성들을 위로해야지  
 永言念成功      오랫동안 선조의 공덕을 그리워하며  
 頌德臨康衢<sup>12)</sup>      사통팔달의 대로위에서 성군의 덕행 칭송하며 노래하겠지  
 〈過晉陽宮〉

위 시는 開元11年(723) 正月에 지어졌다. 이 시기는 현종이 치세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해 이기에 어느 정도 자신감은 있었을 테고 姚崇과 宋璟 같은 훌륭한 재상을 만나 測天武後 이후 흔들리고 있었던 사회적인 어두움도 걷어 냈고 그야말로 '開元之治'를 이루고 있었던 때 이다. 그런데도 굉장히 겸손하고 황제로서의 위엄이 부족하지 않을까 백성들을 교화하는데 백성들이 잘 따라줄까 여기저기 순찰하는데 공연히 수레와 말을 피곤하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과 근심이 대단하다. 皇帝巡遊의 목적의 첫째로는 서민들의 풍속을 이해하려고 친히 골목길을 누비며 백성들을 위로하는 巡遊이다.

存貞期曆試      마음은 정갈하여 끊이지 않는 시련 받아들이고  
 佐貳佇昭融      군왕을 보좌하며 천하가 평안하길 기원하네  
 多謝時康理      천하가 태평하니 너무 감사하고  
 良慚實賴<sup>13)</sup>功      내 비록 약간의 업적 세웠지만 사실은 부끄럽구나  
 〈巡省途次上黨舊宮賦〉

12) 康衢: 사통팔달의 대로이다. 《列子·仲尼》에 堯임금이 천하를 50년간 다스렸는데 번복하고 康衢를 거닐다가 아童들이 부르는 동요를 들었다. “立我烝民，莫匪爾極，不識不知，順帝之則.”

13) 實賴: 全詩校: “一作寶劍”

황제의 바람은 오직 천하가 태평하는 것이었다. 위 시의 序에는 역법의 규율을 계승하고 가요의 징후에 순응하며 천자의 예복을 입고 중원 땅을 관리하면서 천하의 풍속을 알아보기 위해 마차를 타고 순유한다고 했다.<sup>14)</sup>

開元11년 현종이 한가롭게 천자의 수레를 타고 옛 궁을 참배하고 천하의 풍속을 알아 본 적이 있었다. 위 시에서 巡遊는 비록 한고조 유방처럼 금의환향은 아니지만 유방의 고향 豊邑과 같이 潞州도 당현종이 황제로서 업적을 이룬 곳이다. 그러므로 강개하고 화통하게 소리 높여 〈大風歌〉를 부르며 천하를 바라본 것이다.<sup>15)</sup> 그의 기대는 항우·유방처럼 천하를 호통하고 세계를 진동시키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다.<sup>16)</sup>

위 시는 웅장하여 우주를 삼킬 듯 하고 기세가 비범하다. 이 시에서 盛唐氣象을 느낄 수 있다.

野老茅爲屋	고향 뜰에 노인의 띠집방
樵人薛作裳	나뭇꾼은 여지로 옷을 해 입었네
宣風問耆艾 <sup>17)</sup>	덕행을 잘 펴고 교화하여 나는 노인을 찾아가
敦俗勸耕桑	풍속을 잘 돈독히 하고 나는 밭을 잘 갈 것을 권면하리라
涼德慚先哲	덕행이 부족하면 나는 선현들에게 미안하고
徽猷 <sup>18)</sup> 慕昔皇	전대 성현들의 지혜가 부럽네
不因今展義	만약 오늘날 인의 덕정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何以冒垂堂 <sup>19)</sup>	앞으로 어떻게 위험을 감당 할 수 있을까?

〈早登太行山中言志〉

14) 〈巡省途次上黨舊宮賦〉序에서 “今日逍遙，乘六龍而問風俗”이라 했다.  
 15) 〈巡省途次上黨舊宮賦〉序에서 “朕昔在初九，佐貳此州，……一揮寶劍，遽履瑤圖。承曆數而順謳謠，著天衣而禦區夏”라 했고, 또 〈巡省途次上黨舊宮賦〉詩文에서 “先歌漢祖風。……人事一朝異，謳歌四海同”이라 했다.  
 16) 〈巡省途次上黨舊宮賦〉詩文에서 “長懷問鼎氣，夙負拔山雄”이라 했다.  
 17) 耆艾: 노인. 耆는 60이고, 艾는 50이다.  
 18) 徽猷: 훌륭한 계략 《詩·小雅·角弓》: “君子有徽猷，小人與屬”  
 19) 垂堂: 집의 처마 아래. 처마 기와가 떨어지면 사람이 다칠 수 있다. 그래서 위험한 지역을 비유한 것이다. 孫綽 〈遊天台山賦〉: “雖一冒於垂堂，乃永存乎長生”

나그네 떠 집에서 여지로 옷을 해 입고 생활이 무척 청빈한 시골 노인, 당 현종은 노인에게 물어 덕행을 잘 펴고 풍속을 돈독히 하고자 다짐한다. 일반백성들의 삶을 깊이 관찰하고 풍속을 잘 돈독히 하고 힘써 경작하여 사치 풍기를 순후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다. 그래서 전대 성현들의 지혜와 인정을 부러워 한다. 당 현종은 스스로 자신은 덕행이 부족하여 전대 성현들에게 부끄럽다고 여긴다. 그래서 巡遊하면서 민정을 시찰하고 선현들의 성덕을 부러워하며 덕정을 실행하고 후대 명성을 드날릴 것을 각오하고 다짐한다. 두번째 순유의 목적은 위와 같이 자신을 뒤돌아 보며 황제로써의 위치를 생각하고 덕정을 실행하기 위해 다짐의 계기로 삼고자 巡遊하였다.

顧慙嗣寶曆<sup>20)</sup> 자신을 되돌아보니 황제자리 이어 받을 수 있으면서도 부끄럽네  
 恭承天下平 공손히 받들어 이 태평성대를 이어가리라.  
 幸過翦鯨地<sup>21)</sup> 다행히 거대한 원흉을 뿌리 채 없앤 곳을 지나가다가  
 感慕神且英 감동하여 태종 황제의 神武와 영명을 흠모하노라  
 〈行次成臯途經先聖擒建德之所緬思功業感而賦詩<sup>22)</sup>〉

위 시는 東封泰山에서 成臯로 가는 길에 지은 것이다. 자신을 뒤 돌아 보며 당 태종의 위풍과 기개를 생각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선대 황제를 본받아 태평성대를 이룰 것을 다짐하는 시이다.

20) 嗣: 계승하다, 寶曆: 나라의 복, 왕위를 말한다.

21) 鯨: 원흉을 비유, 여기에서는 寶建德을 가리킨다.

22) 成臯: 지금의 河南 滎陽縣 汜水鎮西이다. 先聖은 唐 太宗이다. 建德은 寶建德(573~621)으로 隋末 농민 봉기를 했던 우두머리이다. 清河漳南人(지금 河北 故城縣東北), 大業13년(617)에 樂壽에서 長樂王으로 칭했다. 년호는 丁醜이다. 無德元年(618) 夏王이라 칭했고, 五鳳이라 연호를 바꾸었다. 王世充이 楊侗을 폐하고 황제로 칭했다. 建德은 스스로 천자의 것발을 세웠다. 四年, 李世民과 결전했는데 패하여 포로로 잡혔고 長安에서 피해를 입었다. 兩 《唐書·玄宗紀》에 張九齡과 奉和詩“封岱出天關”等句가 보인다. 이 시는 開元13년(725)10月 東封泰山에서 成臯로 가는 길에 지어졌다.

또 옛 유적지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고인의 업적을 생각하며 巡遊한 시도 있다.

吳國分牛<sup>門</sup>23) 오나라는 28개의 별자리 중 견우와 북두칠성의 자리이고  
 晉室命龍<sup>驤</sup>24) 진나라는 龍驤將軍 王濬에게 뭇나라를 정복하도록 명하였는지  
 受任敵已滅 임명받은 후 오래지 않아 적들은 멸망 했는데  
 策勳名不彰 그의 공업은 오히려 조정에서 넉넉한 표창을 받지 못했으니  
 居美未盡善<sup>善</sup>25) 王濬은 스스로의 공적으로 교만하였으니 이것은 좋은 덕이  
 아니지

〈過王濬墓〉

현종이 東都 낙양에서 출발하여 서쪽으로 柏穀山(지금의 山西省 長治縣內)을 지나가다 西晉시대의 장군 王濬묘에 재배하며 한 수의 시를 지은 것이다. 왕준의 생애를 생각하며 겸손을 다짐하는 현종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坐朝繁聽覽 조정에 앉아 조정의 정치를 들으니 대단히 번뇌스럽고  
 尋勝在淸幽 기쁘게 이곳에서 그윽한 환경을 찾았네  
 欲廣無爲化 억지로 하지 않고 無爲의 다스림의 교화를 생각하니  
 因茲庶可求 여기에서 얻을 수 있겠구나.

〈爲趙法師別造精院過院賦詩〉

23) 牛門 : 28개 별자리 중의 牛宿(견우성)과 門宿(북두칠성)을 가르킨다. 옛 사람들은 북두칠성은 뭇 나라 지역이고 견우성은 越나라 지역이라고 여겼다. 三國시대에는 뭇나라 땅이 곧 옛 吳越이다.  
 24) 龍驤 : 장군 이름과 호이다. 西晉초에 뭇나라에 동요가 있었다. “阿童復阿童, 銜刀浮渡江. 不畏岸上曾, 但畏水中龍.” 王濬은 어렸을 때 字가 阿童이었다. 晉武帝가 드디어 龍驤將軍으로 임명하고 비밀리에 함선을 수리하도록 해서 뭇를 멸 할 준비를 하였다. 《晉書·羊祜傳》에 보인다.  
 25) “居美”句: 뭇를 멸한 후에 王濬은 스스로 공이 크다고 여겼으나 귀한 직분을 억누르다가 매번 황제를 알현하면 스스로 공격할 때의 노고와 억울한 상에 대해 늘 불평을 말 하곤 했다. 황제는 늘 그를 너그럽게 봐 줬다. 王濬의 外親 益州護軍 範通이 그에게 “그卿의 공은 훌륭하다. 좋은 자리에 거하는데 다 좋은게 아닌게 한스럽구나” 《晉書·王濬傳》에 보인다.

위 시의 序에서 현종은 9월 가을에 조정의 정치가 잘 다스려지는 걸 듣고 조정을 나와 上陽宮 서남쪽을 지나 淸虛院에 들어갔다. 이곳은 법사가 지은 도관이다. 현종은 이곳에 들러 휴식했고 또한 억지로 정치하지 않고 無爲의 다스림으로 백성을 교화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위 시에서의 순유는 소요자적하기 위한, 스스로 잘 다스리기 위한 다짐을 위해 순유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을 뒤돌아 보며 옛 선왕들의 위풍과 기개를 보고 또 유적지의 고인을 추모하며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선대 황제를 본 받아 덕정을 실천하기 위한 다짐의 순유이다.

이처럼 현종의 순유는 어느 때는 백생들의 생활의 현장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유적지를 찾아 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소요자적하기도 하며 서민들의 풍속을 이해하고 백성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선현들의 성덕을 뒤돌아보며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고 다짐하며 오직 나라를 위해, 덕정을 실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3. 詩 속에 나타난 玄宗의 인품

이상으로 玄宗의 巡遊詩를 통해 그의 인품을 살펴보자 현종은 어렸을 때부터 皇帝수업을 철저히 받아 왔다고 볼 수 있다.<sup>26)</sup> “나는 보검을 휘두르며 국가를 장악하였다. 역법의 규율을 계승하고 가요의 징후에 순응하며 천자의 예복을 입고 중원땅을 관리해 나갔다”<sup>27)</sup> 그래서 즉위하면서부터 각오가 대단했다고 본다. 덕망 있었던 선조의 덕행을 본받으려 노력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늘 선조의 공덕을 본받으려 노력했는데 그 상대로 멀리는 堯, 舜, 禹를 따르려 했고, 가까이 는 ‘貞觀之治’를 이룬 太宗을 많이 흠모한 것을 볼 수 있다.

26) 鄭英德〈唐玄宗年譜〉四平師院學報, 1983, 第一期 에 의하면 3살 때 楚王으로부터 시작하여 8살 때 淄郡王, 韋尉少卿, 潞州別駕, 銀青光祿大夫를 거쳐 고모인 태평공주와 연합하여 정변을 일으키고 위황후의 세력을 몰리치고 부친을 왕위에 올리는 등 착실히 황제가 될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한다.

27) 〈巡省途次上黨舊宮賦〉序文 중에서도 “一揮寶劍, 遽履瑤圖。承曆數而順謳謠, 著天衣而禦區夏”



먼저 堯 舜 禹를 공경한 시문을 보자

昔是潛龍地      이곳은 舜 임금이 제위에 오르기 전에 거주했던 곳  
 今爲上理辰      오늘날과 같이 천하가 잘 다스려졌지.  
 千載肅如神      堯, 舜, 禹가 남긴 아름다운 덕, 천년 후 까지 사람들은 그들  
                          을 神처럼 공경하고 칭송하네

〈登蒲州逍遙樓〉

祖述堯典      나는 堯의 경전을 계승하고  
 憲章禹績      大禹의 업적을 모방하여  
 敦睦九族      九族을 화목하게 하고  
 會同四海      온 세상 한 마음이 되게 하리

〈春晚宴兩相及禮官麗正殿學士探得風字〉序文

太宗을 흠모하는 시를 보자.

有隋政昏虐      수왕조 정치는 어둡고 포악하니  
 群雄已交爭      영웅들 서로서로 다투고 투쟁하기 시작했네  
 先聖按劍起      선대 황제 태종께서 칼을 빼어드니  
 叱吒風雲生<sup>28)</sup>      위풍과 기개 당당하였지

.....

幸過翦鯨地<sup>29)</sup>      다행히 다시 거대한 원흉을 뿌리 채 없앤 곳을 지나가다가  
 感慕神且英      감동하여 태종 황제의 神武와 영명을 흠모하네

〈行次成臯途經先聖擒建德之所緬思功業感而賦詩〉

이처럼 선대 황제들의 공덕과 업적을 칭송하고 본받으려고 노력하면서도 그는

28) “叱吒”句: 梁 元帝 〈過伐侯景檄〉: “叱吒則風雲興起”  
 29) 鯨: 원흉을 비유, 여기에서는 竇建德을 가리킨다.

늘 부족함을 느낀다. 왕으로서 위엄이 없지는 않을까? 백성들을 교화하는데 부족함은 없을까? 또 덕행을 펴지 못할까 늘 고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尙恐威不逮      나는 위엄 충분하지 못할까 근심하고  
復慮化未孚      백성들 교화하여 따르지 않을까 더욱 걱정하네  
〈過晉陽宮〉

武功今已立      무공은 지금 세웠지만  
文德愧前王      애석하게도 나의 문덕 전대 성왕들과 비교해도 여전히 부족하네  
〈平胡〉

涼德慚先哲      덕행이 부족하면 나는 선현들에게 미안하고  
徽猷慕昔皇      전대 성현들의 지혜가 부럽기만 하네  
不因今展義      만약 오늘날 인의 덕정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何以冒垂堂      앞으로 어떻게 위험을 감당할 수 있을까?  
〈早登太行山中言志〉

현종본인의 자세는 늘 인자한 마음을 가질 것을 다짐하며 심지어 지방으로 발령받아 떠나는 현신에게도 신신 당부 한다. “제일 힘써야 할 것은 제일 신임 받는 장관으로써 인자한 마음을 품는 것일 세”<sup>30)</sup> 또한 정치를 하는데 청렴결백하고자 하였고, 백성들과 잘 소통하고자 하였다. “청렴결백하여 백성을 교화함이 마치 홍수가 흐르는 듯 소통하네”<sup>31)</sup> 또한 허황된 명예 생각하지 않고 맑은 지혜를 가지려고 노력했다. 그의 정치 이념은 백성들을 자녀처럼 여기고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와 노인을 붙잡히 여기고 백성들이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현명하고 능력 있는 신하를 발탁하여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다음 시에

30) 〈送李崑之任滑台〉“課成應第，良牧爾當仁”  
31) 〈送忠州太守康昭遠等〉“誓節期飲冰，調人方導水”

그의 정치사상이 모두 들어 있는 듯하다.

賢能既俟進	현명하고 능력 있는 선비는 발탁되기를 기다리는데
黎獻實佇康	더욱 많은 재주 있는 선비는 태평성세를 기다리네.
視人當如子 <sup>32)</sup>	우리들 이와 같은 자사들은 응당 백성을 자녀로 여기고 백성을 보호하네
愛人亦如傷 <sup>33)</sup>	백성을 사랑하는데 상처도 어루만지고
講學試通論	육경을 토론하고 인민들이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격려하고
阡陌勸耕桑	논 밭 길에서 열심히 농사짓고 양잠하도록 도와야지
虛譽不可飾	허황된 명예 장식하지 않고
清知不可忘	맑은 지혜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求名跡易見	오로지 명성만 추구하면 쉽게 행적이 드러나지만
安貞德自彰	편안하고 정숙한 덕은 스스로 품덕이 드러나지
訟獄必以情 <sup>34)</sup>	소송을 처리할 때에도 반드시 이치에 맞게 하고
教民貴有常	백성들 깨우칠 때도 도에 맞게 해야지
恤癯且存老 <sup>35)</sup>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노인들은 잘 보살피고
撫弱復綏強	외롭고 약한 자를 잘 보살피고 또 사나운 사람도 어루만져야지
勉哉各祗命 <sup>36)</sup>	각자 겸손히 자기의 사명을 다하도록 힘쓰면
知予眷萬方	나는 모두를 뒤돌아 볼 것이다.

〈賜諸州刺史以題座右〉

32) “視人”句：이 말은 본래 《禮記·表記》에 있다. “子民은 부모처럼 근심스럽고 비통한 사람이 있고, 충성스럽고 날카로운 교훈이 있다.”  
 33) “愛人”句：春秋시대에 “視民如傷”의 말이 있는데 통치자가 백성들을 돌보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과 같이 생각하여 소란을 피우거나 놀라게 해서 안 된다. 《左傳·哀公元年》, 《孟子·離婁下》에 보인다.  
 34) “訟獄”句：《左傳·莊公十年》：크고 작은 감옥, 비록 살필 수는 없어도 반드시 情으로서 한다.  
 35) 癯(qióng): 외로운 몸. 存老: 노임을 봉양한다.  
 36) 祗(zhī)命: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다.

그의 정치사상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백성들을 교화하는 것이었다. “대신들에게 반복해서 교화하여 도를 찾을 것을 말하고” “바쁘게 군왕의 무공칠덕을 나타내지 않아도 먼저 교화하여 천하에게 베풀어야지”<sup>37)</sup>

이처럼 백성들 교화를 중시한 것은 현종이 유학에 대한 관심과 유교존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종은 일찍이 유학을 교육시키고 보급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또한 태자시절부터 시독(侍讀)인 유학자 저무량(褚無量)에게 《孝經》과 《禮記》를 강론하였다.<sup>38)</sup> 현종은 유학으로 황실의 자제를 교육시키는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고 국자박사인 郗恒通과 郭謙光, 좌습유의 潘無祚 등 학식이 깊고 넓으며 덕행이 고상한 학자를 뽑아서 태자 및 담왕 등 황실자제의 시독으로 삼았다.<sup>39)</sup> 이처럼 유학을 존중한 것을 현종의 시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進對一言重	나아가 바치는 한 마디 말에는 무게가 있고
適文六義陳	힘이 있는 문장 詩의 정신이 펼쳐져 있네
股肱良足詠	대신들은 모두 칭찬할 만 하고
風化可還淳	천하의 기풍이 순박함을 회복하였네

〈端午三殿宴群臣探得神字〉

위 시의 序文에서 “군신들은 공자의 학생 자유와 자하의 유학을 말하며 시서로 써 마음 속의 번뇌를 씻어 버리네”<sup>40)</sup> 유가사상이 사회 바탕에 깔려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현종이 유가사상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고 준비장유를 공고하게 하여 각기 그 지위의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고자 하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유학을 널리 보급하고 숭상하고 예와 악으로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 힘 쓴 현종의 모습을 읽을 수 있겠다.

37) 〈送張說巡邊〉“股肱申教義”，“不應陳七德 欲使化先敷”

38) 《舊唐書》卷102 褚無量傳에：“景雲初，玄宗在春宮，召拜國子司業，兼皇太子侍讀，～太極元年，皇太子國學親釋尊，令無量講孝經、禮記，各隨端立義，博而且辯，觀者歎服焉。”

39) 《당현종》 278쪽 참고.

40) 〈端午三殿宴群臣探得神字〉의 序文에：“……抑揚遊夏，滌煩想於詩書”



弦歌送羽后      거문고 소리 속에 새날개 잔으로 술을 올리네  
 所希覃率土      온 세상 백성들이 모두 우리처럼  
 孝弟一同規      우애하고 화목하기를 바라네

〈遊興慶宮作〉

위 시는 흥경궁에서 형제들과 놀면서 지은 시이다. 이 序文을 보면 “한가할 때 형제들과 함께 흥경궁에서 놀았다. 근정진, 무분루, 화악상휘루에 오르기도 하고 여기에서 풍속을 보며 백성들을 잘 교화하기를 바라고 형제지간의 정을 나누고 사람들을 잘 교화 할 것을 간절히 바랐다. 시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노래를 길게 하며 그 마음을 펴 보이는 것이다. 감정은 마음 가운데서 나오고 나는 품고 있는 생각을 밝혀 이 시를 지었다”<sup>43)</sup> 이와 같은 사상은 유가사상의 핵심이다. 현종은 특히 《孝經》을 중시 하였다. 開元10年 6월 2일 현종은 자신이 직접 주석을 달고 해석한 《孝經》을 온 나라와 국자학에 나누어 주었다. 天寶 2년 5월 현종은 새로 해석한 《孝經》을 온 천하에 반포하였다. 天寶 三載12月 칙령에 “지금 이후부터는 온 천하의 모든 가정에는 《孝經》 한 권씩을 지니고 충실히 익히며 학교에서는 이를 더욱 전수하고 주와 현의 수장은 이 업무를 힘써 권유하도록 하라”<sup>44)</sup>

舟楫功須著<sup>45)</sup>      공훈이 드높은 신하들과  
 鹽梅望匪疏<sup>46)</sup>      명성이 드높은 재상과 조화를 이루길 바라네  
 不應陳七德      군왕의 무공 칠덕을 나타내지 않아도  
 欲使化先敷      먼저 백성을 교화하여 천하에게 베풀어야지

〈餞王峻巡邊〉

43) 《全唐詩》冊一 明皇帝 〈遊興慶宮作〉並序：“暇日，與兄弟同遊興慶宮，登勤政務本及華萼相輝之樓，所以觀風俗而勸人，崇友於而敦睦，詩以言志，歌以永言，情發於衷，率題此什。”

44) 《唐會要》卷35 〈經籍〉“其載十二月，勅自今已後，宜令天下家藏孝經一本，精勤教習，學校之中，倍加傳授，州縣官長，明申勸課焉。”

45) 舟楫：나라가 어려울 때 몸 바쳐 나서는 충신을 말한다. 《書·說命上》：載殷高宗傳說爲相之辭：“若濟巨川，用汝作舟楫。”

46) 鹽梅：殷高宗이 傳說에게 명령하여 재상을 하게 한 것이다. 그는 국가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서 후에 재상을 아름답게 칭할 때 이용했다. 《尚書·說命》：“若作和羹，你惟鹽梅。”

顧惟德涼	덕행이 천박한 자를 둘러보며
夙夜兢惶	아침저녁 조심스럽고 두려워하네
慚化疏兮	교화가 안 되어 부끄러우니
上之所教	위에 있는 군왕은 교육하고
下之所效	아래에 있는 백성은 감화하고
實在予兮	이 모든게 나에게 달려있구나

〈鶴鶴頌〉

이와 같이 유가사상을 이용하여 효도를 크게 강조하고 선왕의 지혜와 가르침을 잘 따르게 하여 교화가 잘 되도록 이끌었다. 이는 자연적으로 황권이 더욱 강건해 지고 나아가 당대 사회를 안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

또한 현종은 형제간의 우애있는 행동은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근본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형제들 중에 누가 앓기라도 하면 “종일 먹지 않고 자지도 않았다고 했을 만큼 걱정했다고 한다.<sup>47)</sup> 막내 동생인 薛王 業이 병석에 누워 있을 때도 반나절 동안에 열 번이나 사람을 보내 병세를 알아오게 했을 뿐 만 아니라 몸소 업을 위해 탕약을 달여 주었다고 한다. 그 때 탕약을 달이는데 열중한 나머지 수염을 태웠는데 측근이 부축해 일으켰을 때, “이 약을 먹고 나아주기만 하면 수염 같은 것은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말 했다는 일화도 남기고 있다.<sup>48)</sup> 이렇게 형제를 아끼는 다정다감한 인품이 있었다.

이처럼 현종은 덕행을 쌓으려 많이 노력하면서 형제간의 정을 중요시하고 형제가 화목하면서 온 백성도 화목해지길 바랐다. 현종은 황제로써 본분을 잃지 않으려 애쓴 자이다. 그리고 나서는 하늘의 뜻에 맡겼다. 하늘이 내려준 은혜를 받고 온 나라가 풍년을 맞이하여 잘 다스려지길 기대하였던 것이다.

47) 《中國皇帝列傳》 汎潮社, 鄭成煥 編譯, 149쪽.

48) 주46)과 같음.

#### 4. 結言

황제는 전통시대 가장 존엄한 위치에 있는 특별한 신분이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당 현종의 공적과 과실은 반반이라고 평한다. 어떤 이들은 그를 중화민족의 걸출한 역사인물 중 하나로 꼽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풍류황제로 부르기도 한다. 필자는 현종의 시를 읽으며 그들의 평가를 확인해 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시 속에는 세간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황제의 면모를 찾아 볼 수 없었고 양귀비와 그 열정적으로 나누었던 사랑의 면모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오로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생각으로 가득찬 황제의 모습만 찾아 볼 수 있었다. 역시 '開元之治'를 이룩해 낸 황제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현종의 시 63首중 巡遊詩를 골라서 그 속에서 표현한 황제의 人品을 살펴 본 것이다.

당 현종의 巡遊詩는 그의 63首의 시가 중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종의 순유는 어느 때는 백성들의 생활의 현장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유적지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소요자적하기도 하며 서민들의 풍속을 이해하고 백성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선현들의 성덕을 뒤돌아보며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고 다짐하며 오직 나라를 위해, 덕정을 실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현종의 巡遊詩로 살펴볼 수 있었던 현종의 인품은 정치를 하는데 청렴결백하고자 하였고, 백성들과 잘 소통하고자 한 황제였다. 또한 허황된 명예 생각하지 않고 맑은 지혜를 가지려고 노력했다. 그의 정치 이념은 백성들을 자녀처럼 여기고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와 노인을 불쌍히 여기고 백성들이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현명하고 능력 있는 신하를 발탁하여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의 정치사상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백성들을 교화하는 것이었다. 현종은 덕행을 쌓으려 많이 노력하면서 형제간의 정을 중요시하고 형제가 화목하면서 온 백성도 화목해지길 바랐다. 또한 현종은 황제로써 본분을 잃지 않으려 애쓴 자이다. 그리고 나서는 하늘의 뜻에 맡겼다. 하늘이 내려준 은혜를 받고 온 나라가 풍년을 맞이하여 잘 다스려지길 기대하였다. 이러한 인품을 그는 시를 통해



표현 하였던 것이다.

〈參考文獻〉

- 《全唐詩》中華書局.  
《全唐詩》文化藝術出版社.  
《新唐書》鼎文書局.  
《舊唐書》鼎文書局.  
計有功撰《唐詩紀事》宋·木鐸出版社, 1982.  
劉方, 陳珂均〈唐玄宗李隆基詩作編年考〉《湖州師範大學學報》第33卷 第13期 2011.  
鄭英德〈唐玄宗年譜〉《四平師範學報》第一期, 1983.  
沈文凡, 王春明〈盛唐詩幸:百年來唐玄宗詩歌研究綜論〉《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第53卷 第三期, 2013.  
丁放, 袁行霈〈唐玄宗與盛唐詩壇〉《中國社會科學》第4期, 2005.  
羅文革〈淺談唐玄宗對盛唐詩的影響〉《邯鄲職業技術學院學報》第21卷 第3期, 2008.  
吳宇菲〈唐玄宗的巡遊詩〉《佳木斯大學社會科學學報》第 28卷 第4期, 2010.  
崔宇錫〈唐皇帝的 詩歌創作과 그 詩歌史的 의미〉《中國學論叢》제39집. 고려대 중국학연  
구소, 제39집. 2013.  
李善奎著《中國詩歌文化》齊魯書社, 1999.  
임대희·우성민 옮김 《당현중》서경문화사, 2012.  
許道勳 趙克堯《唐玄宗傳》人民出版社, 2003.  
冰宏 編輯《中國皇帝全集》卷 3, 大眾文藝出版, 2010.  
한국동서철학회 《東西哲學研究》2003, 9 〈老子的 道와 無爲〉 감학목, 경희대.  
趙克堯·許道勳著 김정희 옮김, 《당대중평전》민음사, 2011.  
霍松林·傅紹良著《盛唐文學的文化透視》陝西師範大學出版社, 2000.  
鄭成煥 編譯《中國皇帝列傳》汎潮社, 1985.  
劉曉峰著, 《東亞的時間》中華書局, 2007.

〈中文提要〉

唐玄宗不僅是一位卓越的政治家,也是一位詩人。唐玄宗不僅是開元盛世的締造者,也是繼唐太宗之後唐代帝王中詩歌成就最高、存詩最多的詩人。《全唐詩》中獨立收錄其詩歌一卷,63首,殘句二首。

本文首先分析玄宗詩歌中巡遊詩為中心,探求玄宗的人品。

《全唐詩》收錄有其玄宗詩歌63首,其中巡遊詩有21首。這些巡遊詩體現了展現了玄宗深入民間體察民情,輔宣風化,力勸耕織,使社會風氣醇厚的場景。又描寫唐玄宗對古代賢明君主的羨慕之情。並體現了唐玄宗勵精圖治,開創盛世的雄心大志。

玄宗儒家禮樂教化的思想中特別強調孝道、兄弟友愛。玄宗有眾多的同父異母的哥哥與弟弟,據唐玄宗回憶說:“嘗號五王,同開邸第,遠自童幼,暨乎長成,出則同遊,學則同業,事均形影,無不相隨。”(《全唐文》卷40玄宗〈奠讓皇帝文〉)這種和睦的兄弟關係,對於後來的政治爭起了良好的作用,避免了“推刀同氣”之類現象。

玄宗不但重視兄弟友愛而且實踐君臣間友愛之道。他愛姚崇、宋璟等賢相,玄宗的‘友愛之道’起了積極的作用,獲得了‘終保皇枝’的結局,避免了可能發生的‘禍變’,有利於開元時期政局的穩定。

唐玄宗並不以一貫正確自居,別人說得對就接受,自己做錯了就改正,這裡的關鍵在於“自省”,禁斷奢侈,反對浪費,這是‘開元之治’的重大成果。

綜上所述,唐玄宗在位四十餘年,除了開元中長安左屯營兵和天寶末邢絳兩次小亂外,其本上是“天下太平”的。政局安定,皇權鞏固,一個重要的因素就是兄弟友愛。儒家思想中禮樂教化的治國思想。這不能不說是唐玄宗的人品,表現了傑出的政治家所具有的器度。

關鍵詞: 玄宗, 開元之治, 巡遊, 德政, 無為, 人品

이 논문은 2014년 4월 15일에 접수되어 2014년 5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4년 5월 20일에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